

2023회계연도 제2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 일시 : 2023년 5월 26일(금요일) 14:00 ~ 15:00

○ 장소 : 전북대학교 대학본부 3층 이노카페

○ 회순

1. 개회 2. 위원장 개회 선언 3. 안건상정 4. 폐회

○ 참석자 : 김종석, 백기태, 김사옥, 손정민, 조화림, 황인섭, 박윤서, 배준수, 양수정 위원

○ 불참자 : 이동현, 주호중, 정우상, 최시영, 이현욱, 박상민 위원

○ 상정안건

- 2023회계연도 대학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간사 : 바쁘신 가운데 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최경락)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제2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요안건은 「2023 회계연도 대학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위원장님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진행이 있습니다.

위원장 : 인사말씀

(황인섭)



양수정

위원장 : 오늘 재정위원회 회의는 15명 중 총 9명이 참석하여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의사 정족수에 달했으므로 성원이 되어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 대학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학교 측 제안 설명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 배포된 회의 자료에 의거 「2023회계연도 대학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김태성) 대하여 설명함

위원장 :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섭)

위원 : 설명자료 5쪽에 있는 경상순세계잉여금은 저번 재정기획위원회에서 결정된 것 (배준수)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수요조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 본부, 단과대학, 부속기관으로 정식 공문을 보내고 다시 공문으로 받아서 수요조사를 (김태성) 진행합니다.

위원 : 학과 단위로는 아니고 단대 단위로 이뤄지는 것인가요?

(배준수)

재무과장 : 단대로 공문을 보내면 단대에서 학과에 안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 학과 단위까지 수요조사가 된 것인지 아니면 단대 학장, 부학장 선에서 제출된 것인지
(배준수) 궁금합니다. 저는 수요조사 공문을 못 봐서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원 : 본부에서 문서를 시행할 때 수신처가 그룹핑이 되어있기 때문에 단대로 가는 것
(김사육) 같습니다. 그리고 단대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 학과로 문서를 전달하는지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알 수 없습니다.

위원 :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단대별로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서 그렇습니다.
(배준수) 분명 예산이 필요하지 않지는 않을 텐데 신청을 안 한 단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가 잘 이뤄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단대차원의 수요도 있지만 학과차원의 수요도 분명 있을 텐데 전달이 잘 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 이번에 취합된 추가요청액이 190억 정도였고 기획처에서 재원 105억에 맞춰 심사를
(김태성) 진행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수요조사 공문을 통해 학장님들께 다 보고가 되었지만 주요사업비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은 단대도 있었습니다.

위원 : 각 학과로의 전달 여부는 단대에서 결정하는 것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배준수)

위원 : 과거에 수요조사를 할 때 보면 각 학과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예산을 요청해도
(박윤서)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보니 이번에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예 안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할 텐데 이를 위해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예산을 제대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3~6쪽에 목적지정사업, 목적순세계잉여금, 경상순세계잉여금 이렇게 세 가지로 세출이 이뤄져 있습니다. 1쪽에서 목적지정사업은 세입과 세출을 1:1로 편성한다고 되어있어서 예산이 되는 부분인데,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는 목적순세계잉여금과 경상순세계잉여금 두 가지가 어떻게 나눠졌는지가 궁금합니다.

위원 : 목적순세계잉여금은 처음부터 목적이 정해진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 실험실습기자재
(백기태) 확충비는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잔액 역시 해당 사업에만 쓸 수 있습니다. 목적이 이미 정해져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예산이라 어떻게 보면 경직성 경비에 해당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 목적지정사업처럼 목적순세계잉여금도 목적이 정해져 있는 것이군요.

(박윤서)

위원 : 네. 경상순세계잉여금 142억이 여러 부서에서 사업 집행 후 남은 예산이고 중요도나
(백기태) 우선순위에 따라 추경을 통해 올해 다시 편성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 그렇다면 재정기획위원회에서 경상순세계잉여금 142억에 대한 모든 사업을 판단하고
(박윤서) 편성하나요?

위원 : 여러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을 재무과에서 1차 논의 및 협의 후 재정기획위원회를
(백기태) 통해 1차 통과를 하고 재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이 되어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산요구에 대한 모든 문서를 재무과에서 받은 후 기획처로 넘겨주었고 기획처에서
예산요구서를 제출한 모든 부서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각 부서에서 신청한 총금액은
190억 정도였지만 가용예산이 142억이고 그 중에서 공공요금 35억 등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05억을 가지고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할 때 매년 추경을 통해 지원했던
부분들에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예를 들면 사범대 학생들의 현장 교생실습비가 매년
추경을 통해서 지원됐는데 이처럼 학생 교육과 관련되고 매년 추경을 통해 지원한
부분들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또 연구처에서 비용이 큰 부분은 연구지원대응사업비인데
올해 나갈 대응자금이 38억 정도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증액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5페이지에서 학생처 후생복지지원에 인권센터운영
(손정민)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인권센터가 법적 조직이 되었기 때문에 학생처 하부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에서 제일 큰 부분이 기관공통운영에서 공공요금 34억 9천만 원입니다.
아마 에너지 비용이 차지하는 부분이 클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사용료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 내 사업단
이라든지 시설을 사용하는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현재 재무과에서 추산을 해서
징구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 내 시설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사용자
대해 명확하게 비용을 부과하는 체계가 없이 계속 학교가 이런 비용을 부담하면
그만큼 학교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학교가 수익을
만들어내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지출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산단을 담당하다보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서 이제는
명확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다른 학교 사례를 보면 사업단 앞에
전기 계량기를 설치하고 거기서 사용한 요금은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학교는 통신비만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은 사업단은 어렵더라도
큰 사업단을 시범으로 해서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학교차원의 재정을 건전화시키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이 하나 있는데 공과대학에 새만금캠퍼스운영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새만금캠퍼스가 공식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 : 산학융합지구 새만금공동캠퍼스가 있습니다. 해당 학과생들 버스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백기태) 됩니다. 올해는 142억이 생겼지만 내년에는 얼마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본예산을 세워놓고 매년 추경을 통해 반영하던 예산들이 있습니다. 매년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것은 처음부터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해서 재무과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 그래서 매년 수요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수요조사를 투명화해서 신청기회가
(배준수) 있다는 것이 각 학과에까지 전달되어야하지 않겠느냐 해서 앞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 : 그 부분은 본부에서 공문행위로 진행하게 되는데 매년 11월경에 수요조사를 하고
(백기태) 부서별로 면담을 해서 본예산 주요사업비 편성을 합니다. 이번 추경은 집행부가 바뀌면서
추경 주요사업비 및 본예산 주요사업비도 다시 수요조사 후 면담 등을 통해 진행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 공공요금에 한 달에 얼마정도 들어가나요?
(김사옥)

재무과장 : 작년 1년 동안 105억 정도입니다. 올해는 공공요금 인상폭이 커서 추경 때 추가
(김태성) 반영했습니다.

위원 : 올해 공공요금을 다 올린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책이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김사옥)

위원 : 참고로 반도체 관련 사업단처럼 전기를 많이 쓰는 시설이 몰려오면 1년 전기요금이
(백기태) 상당하니, 전체적으로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서
손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 : 예를 들어 반도체물성연구소를 말씀드리면 교육용도 있겠지만 외부 수탁을 받아서
(손정민) 진행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물론 구별이 어렵겠지만 실제로 학생들을 위한 것은
학교에서 부담하고 외부 수탁 사업을 위한 것은 요금을 받아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 옥상에 태양광 장치가 많이 설치되어있는데 요즘 별이 좋아서 전기요금이
줄어들어야 하거든요. 관리가 안 되는 지출이 계속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년에 100억이라고 하시니 10%만 감해도 10억입니다.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 한 가지 건의사항 말씀드립니다. 나눠주신 설명자료에 추경예산은 나와 있지만
(박윤서) 기정예산 부분이 없습니다. 이 자료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부서별, 사업별로 기존에
예산이 얼마가 있었고 그것 대비 추경으로 얼마를 증액하는지가 나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추경예산안 책자에 있긴 하지만 앞으로는 설명자료에도 이 내용을
포함시켜서 추경 수준을 한눈에 잘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네, 말씀하신 내용 고려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황인섭)

위원 : 이번 대동제를 지난 12월부터 거의 밤을 새워가며 준비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로 (양수정) 대규모 인원이 모인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깨닫고 최대한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대운동장을 방치하고 학생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이번에는 유사시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운동장 중간에 펜스로 길을 냈습니다. 원래는 예산이 안 들어가는 대운동장 무대였는데 안전을 위해서 천오백만 원 정도의 학생회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백 명도 안 되는 학생회 인원들이 펜스를 설치하기 위해 매일 아침 7시까지 모여서 무거운 강철펜스를 옮기고 케이블타이를 묶고 풀고 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안전사고 없이 즐거운 축제가 진행되어서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대운동장에서는 사고가 없었는데 중앙도서관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앙도서관이 지리적 특성상 바람이 고였다가 강하게 부는데 이번에 저희가 설치한 부스 캐노피가 날아가서 차량 4대를 파손시켰습니다. 천오백만 원 정도의 견적이 나왔는데 학생처의 노력으로 천만 원까지는 보험처리를 하게 됐지만 나머지 오백만원에 대해서는 학생회에서 부담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축제 진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처리하는 보험이 있는데 저희는 인지하지 못해서 무대보험만 들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축제나 행사를 진행할 때는 전체 보험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료가 오백에서 육백만 원 정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펜스에 관한 천오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도 보험처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예산으로 부담해야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대학회계로 지출이 안돼서 사비로 감당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이천만 원이 삭감된 상황에서 학생회를 운영하다 보니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번에 학생회 자체적으로 추경자료를 보냈는데 재정기획위원회에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서는 학생회 예산 증액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네, 본 안전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황인섭)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위원 :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백기태)

위원 : 재청합니다.

(전체)

위원장 : 본 안전에 대해 거수로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상정된 안전에 대해 찬성 위원은 (황인섭)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전원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찬성 9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본 안전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 본 회의를 마치기 전에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행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황인섭) 제2항에 의거 회의록 서명을 출석 위원 전원이 하여야 하나 단서조항에 따라 출석
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대표로 간(間)서명을 할 수 있기에 대표자 3인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회의 때는 김종석 위원님, 정우상 위원님, 양수정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정우상 위원님께서 불참하셔서 교수회에서 한 분이 간서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윤서 위원님 괜찮으십니까?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박윤서)

위원장 : 이에 김종석, 박윤서, 양수정 위원이 간(間)서명하실 대표위원으로 결정되었음을
(황인섭)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제2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 :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제2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락)

작성일 : 2023. 5. 31.(수)

  
위원장 :

황인섭 

간사 :

최경락 

기록자 :

부찬미 